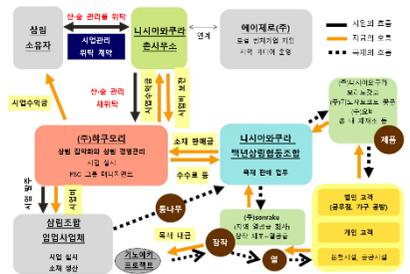


“100년의 삼림 구상”을 기점으로 하는 로컬 벤처기업과의 협동

니시아와쿠라촌



100년의 삼림 사업
100년의 삼림 사업 계획



“100년의 삼림 사업” 계획도

[상황(배경, 목적 등)] 삼림이 촌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니시아와쿠라촌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로컬 벤처기업을 창업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삼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의 자연 자본인 삼림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- [내용(사업 개요 등)]
- 지자체가 실시 주체가 돼 삼림의 관리 집약화와 삼림시업을 실시. 젊은이 등의 창업을 통한 삼림 관련 산업의 활성화
 - 촌을 거점 삼아 창업하고자 하는 젊은이에 대해 외부 및 지역 내 멘토가 서포트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
 - 하천수를 이용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 판매 수입을 삼림 정비와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에 재투자
 - 슈아베기 미이용재, 제재 부스러기를 이용해 온천시설에 장작 보일러를 도입하고 목질칩 보일러로 공공시설에 온수를 공급해 난방과 온수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정비

- [효과(특징, 선진성, 향후 전개 등)]
- 관리를 집약한 삼림 면적은 1,488ha이며, 사업 실적은 슈아베기 1,649ha, 삼림 내 도로 정비 100km에 이른다.
 - 34개 기업이 창업해 180명의 고용을 창출. 로컬 벤처기업의 생산액은 약 13억 엔에 이른다.